

아이돌 인성교육 · 스태프 노동 환경 문제 '도마'

# 아이린 '갑질 논란' 파장

스타일리스트 폭로로 대중 반응 예상보다 격렬

아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사이에서는 더 큰 반발 여론 형성

스타일리스트 겸 패션에디터에 대한 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갑질 논란'으로 아이돌의 인성 교육과 노동 환경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K팝이 세계적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의 안팎으로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면도 꾸준히 조명됐다. 연습생 시절부터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춤과 노래 실력은 단연 발군이지만,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덜 다듬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들은 잇따라 트레이닝 시스템에 인성·전인 교육 항목을 추가해왔다. 일부 기획사에서는 노래와 춤보다 예의 범절, 인사성 등을 더 강조하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기획사도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깽뚫하게 인사하기, 일정이 끝날 때마다 도와준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하기 등의 덕목은 이제 아이돌 되기 과정의 필수다. 여전히 주목 받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성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스타일리스트 A씨가 "내가 '올'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히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고 아이린에 대해 폭로하면서 K팝계에서는 인성 교육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A씨의 폭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격렬하다. 사회 전반에 계급,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갑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상황에서 터진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레드벨벳은 아이돌계에서 톱그룹이고 그 중에서 화려한 외모를 보유한 아이린은 팀 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다. 강자로 보일 수 있는 아이린의 위상 때문에, 그녀의 사과에도 대중 사이에서 더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중견 기획사 관계자는 "레드벨벳은 대형 기획사 소속의 인기그룹이라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우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갑질' 논란이 그런 인식을 더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K팝 위상 커져가면서 나오는 부작용" 지적도

"매도하는 방향으로만 몰아가는 건 부당" 주장까지

"건강한 정서 위해 소속사 사회 안팎으로 배려 필요"

부채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에서는 좀 더 구조적인 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팝의 위상이 점차 커지면서 나오는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K팝이 마치 만능키처럼 통한다. 대중문화계뿐만 아니라 분야를 막론하고 'K팝 스타' 모시기에 할안이 됐다. 무엇을 하든 이익을 끌 수 있는 '홍행 보충 수료'이기 때문이다.

한 축제 담당자는 "연예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이름값 있는 K팝 그룹만 섭외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만큼 섭외 경쟁이 치열해져 제안 조건이 좋아지고, 한류스타들도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아이린에 대한 각종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그녀를 무조건 매도하는 쪽으로만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요계 관계자는 "아이린이 주변 스태프들이 평소 눈여겨본 물건을 선물해주는 등 미담도 다수 있다"면서 "2018년 평양 공연 때도 인원 제한 때문에 매니저, 스태프가 거의 함께 하지 못했는데 팀 동생들을 잘 챙겼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이린은 평소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외부에 대한 대중의 주목도가 커지면서 스타일적인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건도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뒤따라 분출된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아이돌은 항상 밝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K팝 업계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아이돌도 사람이다. 뼈뺀 스케줄에 그것도 하루 종일 대중의 눈과 귀를 조실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 시간 없이 내몰리다보면 스트레스를 마땅하게 분출할 수가 없어 다소 쉽게 보이는 대상에게 그것이 공격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소속사와 대중문화계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11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더 많은 기관, 기구가 역할을 분담해야 좀 더 개인에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아이돌을 매니저먼트하는 중견 기획사 관계자는 "연예인들이 예민하기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들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 소속사는 물론 사회 안팎으로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아이린과 그녀가 속한 레드벨벳은 향후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드라마 방송 스태프, 하루 평균 최소 14시간 최대 20시간 일해

100명 중 85명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

드라마 방송 스태프 종사자들의 85%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하는 등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약 형태는 개별 근로계약 체결보다 불공정한 계약으로 꼽히는 턴키(turn-key·일괄인찰) 계약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인격취급 발언 등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드라마 스태프 노동실태 긴급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드라마 스태프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실태 조사는 지난 2018년 처음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는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소속 드라마 스태프 종사자 33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드라마 스태프들의 하루 평균 일 노동시간은 '16~18시간 이내'가 3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4~16시간 이내'(31.5%), '18~20시간 이내'(15.8%) 등의 순으로 조사돼 하루 평균 14~20시간 근무하는 스태프들이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다만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시간 이상' 근무는 29.9%에서 2.7%로 대폭 줄고, '18~20시간 이내'도 29.9%에서 15.8%로 감소해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주 4일'이 36.7%로 가장 높았다. 2018년(30.9%)보다 5.8%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주 5일'(24.8%), '주 6일'(1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휴일 없이 '주 7일' 일한다는 응답은 7.9%였다.

고용계약 형태를 보면 '근로계약 체결'이 24.5%로 2018년(10.0%)에 비해 14.5%포인트 증

가했다. '구두계약'도 26.8%에서 2.7%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도급계약'(35.2%), '턴키계약'(31.2%) 등은 여전히 높았다.

근로계약을 쓰지 않은 스태프들은 대부분 방송사 등의 관행과 요구로 도급·턴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제작 현장의 관행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송사 또는 외부 제작사가 요구했기 때문(31.7%), '본인이 노동자가 아닌 개인도급(자영업) 사업자이기 때문'(16.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스태프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계약체결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방송사나 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써야 한다'는 응답이 77.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근로 중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격취급 발언'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욕설'(37.9%), '폭행'(7.6%), '성희롱 및 성추행'(0.3%) 등의 순이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처리 방법은 '방송사나 제작사가 일부 지원'이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26.4%), '방송사나 제작사가 전액 지원'(20.0%), '본인 자비로 처리'(18.8%) 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태를 토대로 드라마 제작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장시간 노동'이 7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4대 보험 미가입'(34.2%), '부당한 계약'(32.6%), '낮은 보수'(29.5%) 등의 순이었다.

방송 스태프 노동조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91.2%로 대부분이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아울러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중복응답)에 대해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66.5%)와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감시감독 강화'(66.2%)가 다른 대책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뉴시스

## 데뷔 17주년 에픽하이 내년 1월 정규 10집 발매

작년 3월 '슬립리스 인' 이후 첫 앨범

그들 '에픽하이(EPIK HIGH)'가 1년10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한다. 지난 23일 소속사 어워즈에 따르면 에픽하이는 내년 1월 열 번째 정규 앨범을 공개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슬립리스 인' 이후 첫 앨범이다. 한국 힙합 대중화에 앞장 선 에픽하이는 기록했다.



2003년 첫 앨범 '랩 오브 더 휴먼 솔'을 발매, 올해 데뷔 17주년을 맞았다. '평화의 날', '플라이', '러브 러브 러브' 등의 히트곡을 냈다.

전작의 타이틀곡 '솔이 달다'(Feat. 크리쉬)로 역시 음원 차트 유희를 /뉴시스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